

내년 지방선거 누가 뛰나

■ 광양시장

현 시장 무소속 출마설 나돌아

이성웅(67) 현 시장의 3선 성공 여부가 관전 포인트다.

일부에서 3선에 대한 거부감 탓에 이 시장이 민주당 공천에서 불리할 것이라 분석을 내놓으면서 무소속 출마설이 나돌고 있다. 하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가 말해듯듯 현직 프리미엄에 탄탄한 조직, 무난한 시장 운영 등으로 다른 입지자들보다는 유리하다는 평가다.

이 시장의 대항마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맞붙었던 서종식(50) 변호사가 거론된다. 서 변호사는 그동안 꾸준히 주민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경선에서 승리를 장담하고 있다. 특히 유윤근 의원의 친분이 알려지면서 급부상하고 있다.

정현복(60) 전 광양부시장은 40여년간의 공직 경험을 살려 광양시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사수임을 내세우며 지역 곳곳을 누르고 있다. 이달 말 명예퇴직할 것으로 알려진 김재휴(60) 광양만경경제자유구역청 투자정책부장은 최근 자서전 출판기념회를 열고 선거 준비에 들어갔다. 민주당 후보군 중 가장 젊은 남기호(52)



이성웅 67·민 광양시장, 김중대 59·민 전남대교수, 남기호 52·민 전남도의원, 서종식 50·민 변호사, 김재휴 60·무 광양만 투자정책부장, 정현복 60·민 전 광양부시장, 김광영 71·한 전 공시교수, 유현주 38·노 광양시 민생상담소장

전남도의원은 일찌감치 지인들을 통해 시장 출마를 공식화하고 각종 행사를 챙기는 등 보폭을 넓히고 있으며, 광양시봉사단체협의회장을 역임한 김중대(59) 전 전남대 레크리 단장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김광영(71) 전 공군사관학교 교수가 '광양만권 통합' 소신을 밝히고 도전장을 냈으며, 민노당에서는 유현주(38) 광양민생상담소장이 나설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박정진기자 pjy4079@

■ 담양군수

군수 도중 하차에 청렴성 이슈로

담양은 수위 혐의로 구속된 이정섭(61) 군수가 지난달 24일 실형이 확정되면서 군수직을 상실, '무주공산'이 됐다. 이처럼 '행정 추문'이 끊이지 않는 탓에 내년 담양군수 선거에서는 청렴성이 최고 덕목으로 꼽히고 있다.

현재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는 군수 후보군은 최형식(55) 전 군수를 비롯해 유창종(56) 전 담양부군수, 강중문(49)·송범근(57) 전남도의원, 최화삼(54) 전 군의회 의장, 서종환(62) 전 농협중앙회 담양군지부장 등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재기를 버리는 최형식 전 군수는 "군민 행복시대를 여는 경제군수가 되겠다"며 일찌감치 기반 다지기에 나섰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광주 정부통합전산센터장을 지낸 유창종 전 부군수는 30년 공직생활에서 단 한 번도 부정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적이 없다며 깨끗한 행정가로서 담양의 자존심을 찾겠다고 출마표를 던졌다.

유 전 부군수는 기초·광역·중앙 정부를 두루 경험한 '행정 베테랑'임을 강조하고 있다. /담양=노정훈기자 cjob17@kwangju.co.kr



강중문 49·민 전남도의원, 서종환 62 전 농협중앙회 담양지부장, 송범근 57·민 전남도의원, 유창종 56·민 전 담양부군수, 최형식 55·민 전 담양군수, 최화삼 54·민 전 담양군의회 의장

여기에 재선 도의원의 강중문·송범근의 원도 지방행정 감사자 역할을 충실히 해온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세 확장을 서두르고 있다.

또 누구보다도 지역 사정에 밝은 서종환 전 지부장도 최화삼 전 의장도 '군수 적격자'임을 강조하며 12개 읍·면에서 표발같이 노력하고 있다.

■ 곡성군수

고현석 전 군수 출마 고사 변수로

전·현직 군수간 '리턴 매치'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곡성은 고현석 전 군수가 출마를 고사하면서 조형래(60) 현 군수가 일단 유리한 위치를 확보한 형국이다.

조 군수는 지난 1995년 무소속으로 출마해 초대 민선군수가 됐으나 이후 두차례 선거에서 고 전 군수에게 근소한 차이로 연거푸 고배를 마셨다. 이후 지난 2006년 선거에서는 7표 차로 고현석 당시 군수의 3선을 저지하며 재기했다.

조 군수는 '곡성 토박이'라는 장점을 살려 "농업과 관광을 양대 축으로 살맛나는 곡성 건설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기 혐의로 기소됐지만 1, 2심 모두 직위 유지형이 선고돼 가벼운 마음으로 선거에 임할 수 있게 됐다.

조 군수에 맞서 허남석(54) 전 곡성경찰서장과 이영진(66) 전 곡성군의회 의장, 류근기(47) 전 전남도의원 등이 도전장을 준비하고 있다.

허남석 전 경찰서장은 "지역에 남아 오랜 공직경험을 토대로 고향 발전을 위해 일해 보고 싶다"고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영진 전 의장은 "16년간의 풍부한 행정 경험과 두 번의 군의회 의장 활동을 토대로 군 행정과 지역을 구석구석 살펴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그 누구보다 지역 사정에 밝은 지역전문가라는 강점이 있다. 류근기 전 의원은 "장수마을 곡성에 걸맞은 노인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농산물 판로 개척을 통해 농가소득을 끌어올리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밖에 박정하(53) 곡성신문 대표도 자천타천 출마 예정자로 거론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문일(61) 당협위원장도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동부취재본부=김계종기자 kjkim@



조형래 60·민 곡성군수, 류근기 47·민 전 전남도의원, 박정하 53·민 곡성신문 대표, 이영진 66·민 전 곡성군의회 의장, 김문일 61·한 당협위원장, 허남석 54·무 전 곡성경찰서장

■ 구례군수

서기동-박인환-전경태씨 3파전

구례군수 선거는 벌써부터 예측불허의 '3각 구도'를 형성해가고 있다.

재선을 노리는 서기동(60) 현 군수와 박인환(59) 전남도의원 의장, 전경태(61) 전 군수가 치열한 3파전을 벌이고 있다. 이들 모두 민주당 공천을 희망하고 있어 내년에 치러질 본선보다는 예선이 더 치열할 전망이다.

특히 구례군의 인구가 3만명이 되지 않아 '인물론'도 중요하지만 학연·지연에 얽힌 조직력이 승패를 좌우할 공산이 크다. '현직 프리미엄'을 얻은 서 군수는 재임 기간 친환경농업 육성과 지리산관광레저특구 개발을 최대 치적으로 꼽고 있다. 서 군수는 "민선 5기 들어 예산 확충과 농공단지 조성, 지리산 로프웨이 설치 추진 등을 추진해 호응을 얻고 있다"며 "정책 집행의 일관성을 위해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 등 '잡음'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다.

민주당 중앙위원과 전남도당 수석부위원장을 역임한 박인환(59) 전남도의회 의장은 정치 입문 이후 한 번도 당적을 바꾸지 않은 '정통파' 민주당원임을 강조하고 있다. 박 의장은 "지난 20여년간 민주당을 위해 헌신, 지역은 물론 중앙당에 확실한



서기동 60·민 구례군수, 박인환 59·민 전남도의회 의장, 전경태 61·민 전 구례군수

지지기반을 갖추고 있어 공천을 확신한다"며 자신감을 내보였다. 전국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 부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 의장은 특유의 카리스마와 친화력,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가 강점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 군수에게 패한 전경태(61) 전 군수는 그동안 무소속 출마에 무게를 뒀다가 최근 민주당 공천 경쟁에 가세했다. 전 전 군수는 "민선 2, 3기를 거치면서 충분히 도덕성과 능력을 검증받았다"며 "공직자들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권유로 출마 결심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절정부심 3년을 기다려온 전 전 군수는 조직 정비에 나서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전 전 군수가 공천 경쟁에서 밀리면 무소속 출마로 선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lk5826@

■ 보성군수

정중해 군수 민주 재공천여부 주목



정중해 62·민 보성군수, 김중표 62·민 보성 향교회장, 김철우 45·민 보성군의회 의장, 박철현 64·민 정경주도시공사 사장, 유동률 72·민 전 전남의사회장, 이택우 52·민 전남도의원, 황병순 65·민 전남도의원

보성은 재선 도전이 확실시되는 정중해(62) 현 군수의 민주당 재공천 여부가 주된 관심사다.

정 군수가 현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상천 의원이 아닌 신중식 전 의원으로부터 사실상 공천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공천 경쟁이 치열하다.

내년 보성군수 선거 입지자로 거론되는 인물은 7명. 정 군수를 비롯해 이택우(52)·황병순(65) 전남도의원, 김철우(45) 보성군의회 의장, 박철현(64) 전 광주시도시공사 사장, 유동률(72) 전 전남도 약사회장, 김중표(62) 보성향교 회장 등이다.

정 군수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을 원만하게 마무리짓기 위해서는 재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보성군의회 의장을 역임하고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운영위원장을 지낸 지방의회 4선 출신인 이택우 의원은 군수 도전에 의욕을 불태우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박상천 의원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황병순 의원도 정치인생의 마지막 도전이라는 배수진을 치고 의정 경험을 살려 고향 발전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다. 전군 최연소 3선 의원과 의장을 지낸 김철우 보성군의회 의장, 재선 전남도의원을 지낸 유동률 전 전남도 약사회장도 지역 발전에 역할을 하겠다며 출마 의지를 다졌다. 박철현 전 사장은 행정 전문가라는 강점을, 전남도 투자유치 자문관을 지낸 김중표 회장은 전문경영인이라는 이점을 내세우며 뛰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선성근기자 sun@

■ 화순군수

'당선 = 사법처리' 이번에는 그만

화순군수 선거는 이번 치열하고도 복잡하다. 그래서 후유증도 컸다.

당선된 군수들이 출몰이 사법처리 되는가 하면, 그로 인해 재·보선이 이뤄지던 당사자의 부인 또는 동생 등 가족이 그 대리인으로 나서 선거를 치르는 등 진풍경도 많았다.

내년 선거도 벌써부터 시끄럽다.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임호경(57) 전 군수가 비방 의혹을 제기하며 전완준(50) 현 군수를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사실상 선거전에 들어간 상태로, 초반부터 살바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전 군수는 한약초 생약단지과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등 공적 성과를 바탕으로 재선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임 전 군수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의사는 파악하지 않고 있지만 지지층을 대상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 전·현직 군수인 이들의 선거구 조직 싸움도 불만이다.

이기에 구중근(50) 전남도의원과 이윤모(55) 전남도공무원교육원장도 군수 출마에



전완준 50·민 화순군수, 구중근 50·민 전남도의원, 임호경 57·민 전 화순군수, 임호환 63·민 전 농기정 전남본부장, 이윤모 55·무 전남도공무원교육원장

뜻을 두고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구 의원은 "광주시의회가 무등산조례를 제정했을 당시 화순군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반대성명을 냈던 것처럼 지역민을 대변하는 정치를 하고 싶다"고 밝히는 등 민주당내 지지기반을 바탕으로 공천경쟁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이 원장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화순이 한동안 정치에 휘둘러 체체 왔다"면서 "행정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한 때"라며 오랜 행정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민주당 전남도당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호환(64) 전 농업기반공사 전남본부장도 도당에서 주관하는 지방선거 출마자 교육에 참여하는 등 출마 준비를 하고 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kwangju.co.kr

■ 장성군수

무소속 현군수 맞설 민주 경선 불거리

내년 장성군수 선거는 무소속 이청(52) 현 군수와 민주당 후보간 양자대결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 군수에 맞설 민주당 후보 경선이 더 불거진다.

하지만 공천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이낙연 의원이 경선을 거치지 않고 후보

를 추대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해 의외의 인물이 발탁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중앙당의 공천지침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제든 공천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변수도 여전히 존재한다.

유두석 전 군수의 부인으로 지난 재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로 당선된 이청 군수는 군정만족도를 최상위권으로 끌어올리는 등 민심을 사로잡고 있다.

이 군수는 농어촌 뉴타운과 나노산업단지 조성 등 국책사업 유치를 통해 자립형 도시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 의원의 '제3의 인물 공천론'과는 관계없이 김양수(59) 전 전남도



이청 52·무 장성군수, 김양수 59·민 전 도공무원 교육원장, 신극정 59·민 전 경기도 정무부지사, 정창욱 58·민 전남도의원

공무원교육원장, 신극정(59) 전 경기도 정무부지사, 정창욱(58) 전남도의원 등이 공천 경쟁에 나서고 있다.

지난 재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양수 전 전남도 공무원교육원장은 "재선거에서의 교훈을 가슴에 담고 그동안 차근차근 준비해 왔다"며 "지방선거 문화 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재도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신극정 전 부시장은 "중앙에서 쌓은 폭넓은 인맥을 활용해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싶다"고 출마 의사를 밝혔고, 정창욱 의원은 "관광자원을 개발해 소득을 증대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kwangju.co.kr

■ 고흥군수

자천타천 8명 거론 '혼전양상'

내년 고흥군수 선거 입지자는 박병중(56) 현 군수를 비롯해 진종근(62) 전 군수, 김학영(57) 전 고흥경찰서장, 장철우(51) 변호사, 장인식(59) 전 국회 수석전문위원, 신윤식(63)·이일형(57) 전남도의원, 신금식(51) 고흥타임즈 대표이사 등 8명으로 혼전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선거까지 8개월여를 남겨두고 있어 막판 레이스까지 몇 명이나 동참할 지는 미지수다. 현직 프리미엄과 조직 관리면에서 우세하다고 평가되는 박 군수는 투자 유치·교육환경 개선 등 세

일치 행정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박 군수에 대적할 강력한 대항마로는 진 전 군수가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진 전 군수는 최근 민주당 복당을 신청했다가 좌절되면서 출마 여부를 결정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행시 출신의 김학영 전 고흥경찰서장은 경찰 인맥과 경주김씨 문중을 중심으로 표심을 파고들고 있고, 차관급인 국회 수석 전문위원을 지낸 장 전 위원도 중앙부처의 인맥 등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얼굴 알리기



박병중 56·민 고흥군수, 김학영 57·민 전 고흥경찰서장, 신윤식 63·민 전남도의원, 이일형 57·민 전남도의원, 장인식 59·민 국회 수석전문위원, 장철우 51·민 변호사, 신금식 51·무 고흥타임즈 대표, 진종근 61·무 전 고흥군수

에 한창이다. 4선의 이일형 전남도의원인 민주당 고흥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윤식 도의원은 내일 것으로 보인다.

장철우 변호사와 신금식 고흥타임즈 대표는 국회의원을 염두에 두고 활동을 하다 최근 군수 선거로 선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jju@

■ 장흥군수

현군수 재선거도 대항마 관심

내년 장흥군수 선거는 현직인 이명흠(60) 군수의 재선거 도에 누가 대항마로 나설 것인지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인규 전 군수의 낙마로 재선거를 통해 임성환 이 군수는 전남도 관광정책과장, 장흥부군수 등을 역임하면서 쌓은 행정 경험과 강력한 추진력으로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군정과 민심을 사로잡았다는 평가다.

지난해 장흥 대표축제 '정남진 물축제'를 개발, 장흥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한 점도 호응을 얻고 있다. 또 올해 안에 '여성환상센터'를 개장, 여성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포부다.

가장 유력한 도전자로 거론되고 있는 김성(51) 전 도의원은 아직까지 입장 표명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 4·29 재보궐 선거에서 민노당 정우태 후보에게 일격을 당한 김 전 의원은 승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이명흠 60·민 장흥군수, 김성 52·민 전 전남도의원, 김인규 56·민 전 장흥군수, 백도선 64·민 전 장흥군수, 안중운 61·민 전 농어촌공사 사장

다. 김 전 의원은 내년에 출마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백도선(64) 전 장흥군수와 안중운(61) 전 농어촌공사 사장 등도 끊임없이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지만 본인들은 출마 의사를 부인하고 있다.

부인의 교회회금 문제로 물러난 김인규(56) 전 군수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출마설이 나오고 있지만 최근 불출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역정가에서는 주변의 권유에 따라 이들이 막판 출마를 결심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장흥=김용호기자 kykim@kwangju.co.kr